

출판, '지식의 힘'의 원천...역사 발전 동력

멀티미디어 · 메가트랜드 세상 물길도 읽어야

글_ 민병두(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제가 아는 책읽기 모임의 이름이 재미있어서 소개합니다. 모임이름은 '밥보다책'입니다.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일상적으로 책을 읽자, 좀 과장해서 말하면 밥은 굶더라도 책은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저는 '밥보다책'이라는 이름을 접하면서 역설적으로 "책이 우리 일상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있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체라고는 일간지와 TV 밖에 없던 저의 청춘 시절엔 주간지와 월간지, 그리고 책들이 정말로 귀한 지식의 창고였습니다. 신문의 신간 안내를 유심히 읽고 스크랩하며 기대에 찬 발걸음으로 서점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십수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모래알처럼 지식과 정보들이 범람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수백개의 음식 종류가 나열된 백화점 푸드코트처럼 서점에는 갖가지 책들이 종류별로 늘어서 있습니다. 무엇을 읽어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책마다 화려한 디자인의 겉표지와 미사여구들로 독자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먹어보면 맛이 거기서 거기인 푸드코트 음식처럼 요즘 책들도 제목과 표지디자인은 다르지만, 내용은 별로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대는 아기자기하게 많던 사무실 한 칸짜리 출판사들의 다양함이 사라지고, 베스트 셀러를 내는 큰 출판사들과 건물 한 층을 통째로 쓰는 큰 서점들이 대세를 이루는 메가트랜드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시차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출판의 과정은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인터넷과 멀티미디어들의 속도를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 21세기 출판과 한국의 비전을 논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시대적 '니즈'와 트렌드 생산하는 지식 리더 돼야 하지만 '역사발전의 동력이 지식의 힘'이라는 만고 불변의 진리는 앞으로 수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책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또 필요한 존재이고, 책을 내는 출판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멀티미디어 시대가 된 만큼 출판은 책이라는 하드웨어를 만들어내는 역할 이상으로 시대 흐름의 거대한 물길을 먼저 읽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니즈와 트렌드를 먼저 생산해내는 지식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신문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난해 3분기 교양·오락 및 외식비가 각각 월평균 9만7446원과 24만5807원인데 비해, 책값 지출은 월평균 소비지출액의 0.5퍼센트로 거의 '제로'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며 책 안 사고 안 읽는 국민들을 탓하며, 출판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거꾸로 그만큼 우리나라 출판이 도약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출판인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미래, 그리고 출판의 미래를 개척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책읽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문화관광위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편리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런 서비스의 제공은 독서 활성화로 연결될 것이며, 출판계의 좋은 책 만들기 경쟁을 촉발시키게 될 것이다.

넷째는 가정과 지역사회, 직장 등에서 독서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영국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Bedtime Reading"이나 미국의 "Reading on the knee"가 정

착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에서는 독서대회, 시낭송대회, 문학의 밤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성인들의 독서사교클럽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다섯째는 출판계의 전문화다. 서양 출판사 식의 전문가 'Editorship'이 정착되어 장르별로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한 제작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